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최현경 · 표박미라와 함께하는 사람들

fenegyup@yonsei.ac.kr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떨 · 틈

17대 총여학생회 선본을 만나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떨 · 틈 집중 공약 설명

16대 총여학생회 평가

내 안의 페너지 - 언니들의 이야기

특별기고 -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건

그녀들의 만담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최현경 · 표박미라와 함께하는 사람들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이들

정후보 들레/ 양최현경(사회계열 00)

부후보 고래/ 표박미라(인문계열 02)

이끝말 고동/ 이윤수련(사회학 00)

생각말 생생/ 이민주(건축공학 00)

자매/ 김수원(사회계열 03)

워룸말 모란/ 신연경(사회학 01)

봄뜰/ 김혜정(신학 04)

일림말 잠수/ 조은혜(중문 03)

청김말 곡은정(간호 04)

별/ 김산정(도시공학 03)

바아눔/ 류은소리(인문계열 02)

최신영(심리 02)

비안/ 김정민(신방 01)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펼 · 틈

C
O
N
T
E
N
T
S

04 후보 소개

06 여성주의자 그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며

08 17대 총여학생회 선본 이름 움 · 펼 · 틈 더 자세히 알아보기

10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펼 · 틈 공약 정리

12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 평가

16 내 안의 패너지 - 언니들의 이야기

20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펼 · 틈 집중 공약 설명

다시 여성의 언어로 반성목록 답문을 되찾아 오자 · 21

연대활동에 대한 짧은 사유서 · 24

교수성목록 근절을 위한 캠페인 · 26

Networking & Empower -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거기 있나요? · 28

30 특별기고 -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학내에서 여성이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음

32 10월 어느 늦은 저녁, 선본 회의에서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최현경 · 표박미라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는 내 시가 프랙탈 도형처럼 세상 속에 몸담고 세상을 읽는 방법을 가지길 바란다. 울 통불통하고 미끌미끌하며 번덕이 죽 끓는 이 세상 말이다. 시는 이 세상에 몸담은 자가 이 세상(몸)이라는 형상을 이기려는 지난한 몸짓 아닌가.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뜨고 지면서 커지고 줄어드는 달처럼 죽고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본다. 그러기에 여성의 몸은 무한대의 프랙탈 도형이다. 이 도형을 읽는 방법으로 여성

인 나는 생명이 흘러들고 나아가는 길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 산다. 나는 사랑하므로 나 자신이 된다. 나는 사랑하므로 내 몸이 달의 궤적처럼 아름다운 만다라를 이 세상에 그려나가기 바란다. 이 사랑은 태곳적부터 여성인 내 몸에서 넘쳐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유한 실존의 내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러나 이 실존의 실체는 고정된 도형이 아니라 움직이는 도형이다. 늘 순환하는, 그러나 같은 도형은 절대 그리지 않는.

김혜순, "불쌍한 사랑기계" 中





나는 항상 '무언가 다르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볼수록 내가 '무엇과 다르기를' 원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해져갔다. 무엇이 나를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이 내가 같은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성주의를 만났을 때에서야 나는 그동안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발견했고, 여성주의가 나의 일상을 감싸기 시작했을 때쯤 내가 무엇과 달라야 하는지를 발견했다. 아니, 나는 내가 굳이 달라야 하는 그 '무엇'을 놓아버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억압적이고 일상 곳곳에 숨어있지만,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마치 위태로워 보이는 나무 사이에 평온하게 흔들리는 그물창대를 묶어내듯이 나를 웃음짓게 하는 나의 공간,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싶다.

들레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움트는
여성주의의
씨앗

총여학생회 정후보

양최현경_들레 (사회계열 3년 사회학 전공)

1981년 서울 출생
2000년 서문 여자 고등학교 졸업
2000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2000년 사회과학학회 공저자 활동
2000년 신촌 문학축제 기획단
2002년 대학연합 협정단 생무스 코스 부회장
2004년 제 2회 석유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 기획단
2004년 제 7회 여성제 '소녀유림' 기획단



총여학생회 부후보

표박미라_고래 (인문계열 3년 교육학 전공)

2002년 마산 여자 고등학교 졸업
2002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입학
2002년 사진 동아리 연영회 활동
2003년 정치경제학회 독학회 활동
2004년 16대 총여학생회 집행부 활동
2004년 매이데이 어/활 "그게 알? 그대 알" 기획단
2004년 제 2회 석유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 기획단
2004년 제 7회 여성제 '소녀유림' 기획단



고래!
여성주의의
드넓은 물결을
타다

"나는 여성이다" 라고 소리 내어 말해 본다.

목구멍과 허를 통해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가슴에선 어떤 감정이 생겨나는지 느껴본다.
분명히 알기는 힘들다.
"여성"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까지의 나의 삶이 너무도 얹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듯이 느껴지는 감정과 기분을 내 곁에 붙잡아 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한 두 개씩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의 여성주의는 시작된다.
못마땅했던 나의 빈 구석 나의 틈새를 돌이키게 바라봄으로써
그것들이 가진 언어와 무한한 힘을 발견한다.
그 언어와 힘으로 나를 만나고 또 다른 이들을 만난다.

그래, 나는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입 · 월 · 틈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언젠가부터 나를 표현하는 말 속에 여성주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사실 처음엔 조금 멋모르고 시작한 말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나의 경험에 스며들어있던, 그러나 미처 알지 못했던 힘들, 나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큰 소리치고, 설득하고, 때론 바둥쳐버리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차별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양성쓰기를 하고 있는 나의 네 글자 이름을 소개할 때,

남성 중심의 문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규범들의 이유를 거칠게 되물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성차별적인 언론의 기사들을 꼭꼭 씹어가며 대화할 때,

심지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 생활에 대한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할 때조차,

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어디선가 흘러들었을 뿐, 자신의 경험이라곤 손톱만큼도 섞이지 않은 여성주의에 대한 질문을 쏟아붓는 사람들,

내가 입을 열고 대답하는 것보다 나의 침묵을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눈치를 보거나,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나는 때론 장황하게 설명하고, 때론 입을 다문다.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그다지 혼치 않지만, 때론 즐겁지 않아도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면 누군가가 또 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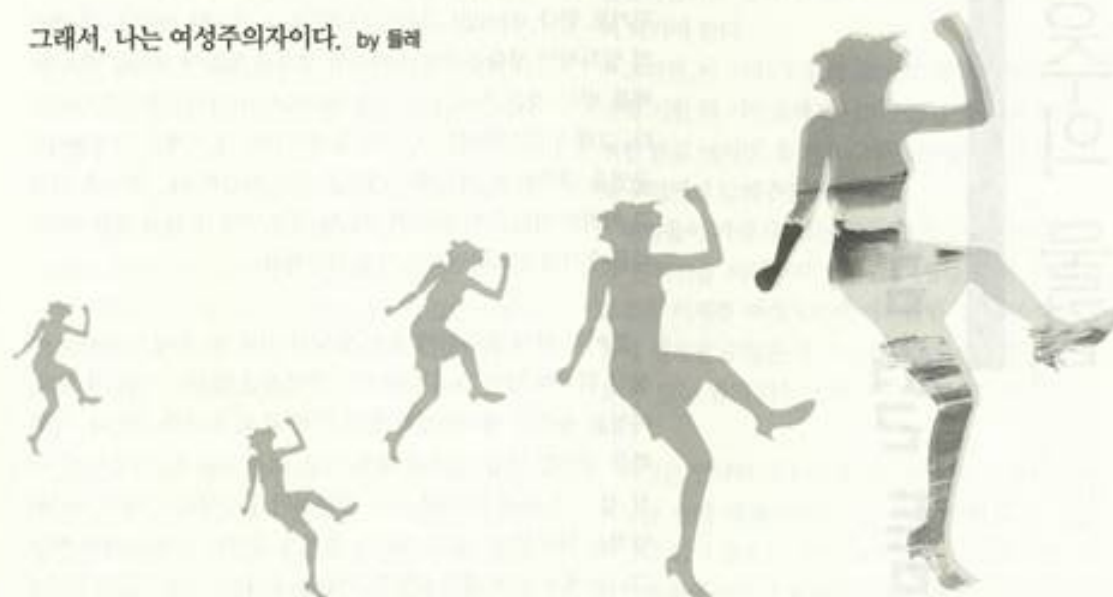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계속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가부장적인 사회, 여성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 것을 종용하는 사회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 균열은 메워야 할 흠집이 아니라, 무한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상상과 성장의 원천이다.

여성주의 안에서 여성은 사회의 전복 가능성을 말할 줄 알고, 또한 들을 줄 아는 파산한 전율의 틈새가 된다. 성찰의 온기와 소통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사회의 틈, 그 틈 안에서 펼쳐지는 자유롭고 유쾌한 이야기들이 여성주의의 물결을 차오르게 하고, 물결의 차오름은 또 다른 틈을 만들어 낸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 이 사회의 틈이라는 것은 그래서 멋진 일이다.

여성주의는 오늘도 나의 일상에 얽힌 사슬을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풍부한 색깔로 나를 입혀내는 언어이며, 나를 끝없이 새롭게 움트게 하는 힘이다. 여성주의의 물결 안에서 내 안의 움튼을 막는 가부장적 담론은 기꺼이 거부되고 그 힘을 잃는다. 여성주의의 물결 속에서 움트고 펼쳐지는 유쾌한 세상의 틈. 나는 기꺼이 틈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여성주의자이다. by 둘레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아름답고 밝은

여성은 여성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온전히 '여성'만을 생각할 수 없다.

여성의 주위에는 그녀로 하여금 강요된 질서를 선택 하게 하고 그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고 그녀의 힘을 빼는 수많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식해버릴 것만 같은 공간 안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때론,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여성주의는 그렇게 여성 각자와 직접 닿아있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등 이러한 일상의 과정에서 여성의 생각과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들에 문제를 제기 한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인식하기 힘들고, 때론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떨 땐 자잘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서 여성주의는 필요한 것이다. 각 개인의 일차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제약을 받고 피해를 받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나의 몸에서부터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균열을 내야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내 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혁명적이다.

보이지 않게 촘촘하게 짜인 일상의 권력 망 속에서 이제껏 여성이 위치해 있던 자리는 여성의 주체적인 행위에 의한 것 보다, 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힘에 의해 주로 의미화 되었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여성 노동자, 장애 여성, 여성 성 소수자 등 자신의 극히 개인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가 결여된 선택을 해야 했던 그녀들에게 이 사회가 보냈던 시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었

다. 그랬기에 그러한 권력의 시선에서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녀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의해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려내고 이 사회가 그녀들에게 가한 횡포를 고발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 흐름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내가 받은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라 권력의 횡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들이 일상의 경험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녀들의 일상의 경험이 짜여진 틀을 바라보는 행동은, 이미 위치 지어져 있던 여성들의 자리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었고, 여성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성들의 존재를 알리게 하고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외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사회는 여성을 나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로 타자화 시켰고 그러한 시선으로 여성들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이 사회화되고 생각함에 따라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압착되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에만 수면 위로 떠오르고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종종 여성들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의 시선을 받는 것도, 나 자신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도, 밤거리에서 가슴 졸이며 걸어가야 하는 것도 지겹다. 여성은 그렇게 약한 존재여야만 하는가. 내 몸을 만지는 그대들에게 나도 이제는 큰 소리 치고 싶고, 애초에 나를 그러한 존재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2004년 여름, 여성들이 자신의 밤길을 되찾기 위한 달빛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 시위는 여성의 밤길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시위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경고를 하는 행위였고, 더 이상 그 위험들을 우리의 몸으로 떠맡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회를 향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 - 이제껏 자신의 몸에 각인된 틀새로 사회에 균열을 내는 힘 -을 뽐내려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 남아 있거나 나약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도 이제 당당한 행위자로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욕구와 의지로 채워갈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여성의 주위에는 이러한 여성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 여성의 하루하루는 그녀들에게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사회와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회의 강력한 힘을 알기에, 이제 여성들만이 가진 힘을 발견하고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전복가능성으로 유쾌하고 발랄하면서도 당찬 물결로 자신을 채워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 사회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까. 달빛 시위 때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던 '여성'과 '남성'을 위한 밤길 에티켓을 보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반응으로 우리에게 답해주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힘과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여성들은 알 것이다. 그것은 이제껏 여성으로서 가져왔던 경험들, 여성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조그만 틈새들로부터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 안에 내재되어있는,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움트는 것을 느껴보자. 그리고 많은 여성들과 함께 마음껏 펼쳐보자. by 고래

Fenergy는 나의 힘

●● 나의 Fenergy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는 내 안의 여성주의에 대한 마음에서,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 동지들과의 유대감과 신뢰에서 오는 것일 게다. 그 발원지가 어디든 간에 Fenergy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로서 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다음날 레포트가 밀려 있을 때 밤을 새서라도 쓰게하는 힘은 마감기한에 따른 성적. 다음날 시험이 있을 때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하게 하는 힘은 시험에 따른 결과물, 밤을 꼴딱 새며 술을 마셔도 오전 9시까지 자친 몸을 이끌고 대강당으로 향하는 이유는 졸업 전 채플 논픽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조금 우스운 비유일지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특정 행동을 하게 하듯이, Fenergy는 실제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도 그것은 나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힘이다.

2002년이던가, 다음날 마감인 레포트가 3개나 있었다. 하지만 반성폭력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느라 레포트 3개를 자정이 넘어서야 쓰기 시작했었다. 사실 그 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꼬박 10시간동안 꼼짝 못하고 레포트를 쓰느라 그 후유증이 이틀을 갔었지만, 지금 뒤돌아봐도 그 때 나의 선택은 아무런 후회를 남기지 못한다. 그다지 집중력이 좋지 못한 내가 10시간 동안 꼬박

레포트를 쓰게 한 힘 역시 내 안의 Fenergy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작년 이맘때까 생각난다. 총여학생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조모임 4개를 하고, 과외 2개를 하면서 연에까지 했었던, 항상 버릇처럼 고민거리를 싸안고 사는 내가 11월 내내 선거 운동에 대한 것을 빼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때 나의 일상은 바쁘게, 급물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또 총이랑 게 언제 나와 함께 있었나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몸을 움직이지 않던 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 문화유세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때도 그렇고, 지금 돌아봐도 그 시간들이 힘들거나 지겹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여성주의에 대한 믿음, 여성주의 동지들과의 유대감과 신뢰가 동시에 나에게로 수렴되면서 선거 운동 중간 중간에 있던 지겨움의 대명사인 조모임까지도 그저 기분하기만 했다.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내 말과 행동을 너무 무겁게 한다고 느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일은 힘들고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힘들고 버거운 때도 많다. 하지만 그 때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동지들에게서 끊임없이湧어져 나오는 Fenergy가 있기에 나는 다시 두 손을 번쩍 들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 나의 동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나는 오늘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고민 한다. 내가 걸어난 발자국 하나가 뒤에 오는 동지에게 또 하나의 Fenergy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인 작은 힘들이 언젠가는 자연스레 거대한 흐름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 그 실력으로 오늘 하루도 더 힘차게 시작해 본다.

by 이음

사실, 졸업이 두려웠다

●● 사실, 졸업이 두려웠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북받쳐 오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홀로 세상에 던져졌다는 외로움.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것들이 무겁고 무섭게 나를 누르고 있었다.

또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졸업 이후 여성주의자로서 나의 삶이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졸업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막연하기만 하였다.

사회에 나가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당장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토록 소중한 경험이었었던 여성

주의 활동 경력은 이력서에 한 줄도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들, 여성주의자인 나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사회에 발 붙여야 한다는 것.

여성주의자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중이고 만들어져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에 대한 나의 고민과 활동을 멈춘다는 것이 두려웠다. 여성주의자가 아닌 '한 때' 여성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남게 될까봐, 나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잘못' 때의 '치기'로 남게 될까봐, 다시는 나의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예전처럼 만나게 되지 못할까봐.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그녀들을 나는 기억한다. 나에게 가장 많은 슬픔과 기쁨과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자신감을 준 그녀들. 내가 여성주의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굳이 여성주의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 몸과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을 때도 웃으면서 자낼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떠올려 볼수록 가슴 벅치고 따뜻한 기억들과 경험,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나의 여성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성주의는 결코 '혼자'는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멈추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녀들을 기억하며, 나 또한 많은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나에게 이제 열렸다고 생각한다.

자신감 넘치는 시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나를 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훌륭한 나의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만고 있다는 것이다.

by 여랑



다시★ 여성의 언어로 반성폭력 담론을 되찾아 오자

무력감을 학습시키는 사회

얼마 전, 밤 늦은 시간 동문에 있는 가게에 가기 위해 어두컴컴한 청송대를 지나 어학당 옆길을 걸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일년 전 만 해도, 고요한 밤길의 정취를 즐기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던 길이였지만, 그날을 걷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빨리 걸으면 고작 5분이면 지나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5분 동안 나는 내내 조바심과 막연한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 공포는 내 몸이 너무나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무력감과, 내 몸에 대한 침해는 너무나 쉽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예감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공포와 무력감은 룸메이트가 외박을 하는 날 밤 혼자 집에서 잠을 청할 때, 환한 대낮이라고는 해도, 길을 걷고 있는 내게 성금을 요구하기 위해 접근한 중년의 남자가 다짜고짜 팔을 잡았을 때에도 순간 닥쳐오곤 했었다.

그리고 몇 일전, 유명철 사건이 있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여대생 실종사건이, 그것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화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와, 그 날 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유난히 걸음을 빨리 해야 했던 일까지.

밤길에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년 전만 해도 나는 밤길이나, 낯선 사람의 접촉,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까지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았었다. 실제로 내게는 고등학교 시절 밤길에서 성적인 위협을 겪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니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밤 시간의 정취를 만끽하며 밤늦게 까지 여기저기를 쏘다니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쩌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

나의 공포와 무력감은 내가 겪었던 위협이 단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 단초가 시작됐었다.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 여성 인신매매, 자취촌에서 흔히 있는 여대생에 대한 성적인 위협들(소위 '변태'라 불리는 성 범죄자들의 출몰). 이 모든 범죄들은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했던 행위들이다. 이 사실을 명백히 체감하는 순간, 성별권력의 망으로 촘촘히 얹혀진 현실 속에 내가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 인식 이후,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들의 영향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담론들에 말대답하기 위해 내가 가지게 된 전략들의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 · 펼 · 툼 ★

집 중 공 약 설 명

영향으로, 성별권력 관계 속에서 갖는 내 위치는 공포의 자리로 변해가게 되었다. 유명철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듯이 성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들은 스텔러 영화 단체 관람이라도 하는 듯이, 이 사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인지를 말하면서 밤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라,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말라, 비 오는 날에 빨간 옷을 입지 말라는 등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에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서바이벌 매뉴얼 만들어 주기에만 머물러 있다. 이 각본 속에서 여성은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부절하며 소극적인 '몸 단속'에 충실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뿐이다. 그리고 이 각본은 '몸 단속'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성범죄의 범죄에 노출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위협이 성별화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범죄는 누구에게든 일어나는 데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공포 운운하느냐며 여성이 처해있는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를 부정하고,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인하며, 성별 권력관계를 읽어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에게 나는 내가 겪어야 하는 공포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주로 그 끔찍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밤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 안에 남성과 단 둘이 타게 되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할 것 같은지 한번만 짐작해 보라고 사정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고통에 방점을 찍어 써낸 언어들은 고스란히 내 몸으로 되 돌아와 공포와 무력함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반성폭력운동 - 성폭력의 존재를 '인정' 받기 위했던 싸움

나의 이런 전략은 현재 대학 내의 반성폭력 담론 구조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별권력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사회에 그것이 권력의 문제이며, 그 행위는 폭력임을 드러내기 위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인정받기 위한 말하기'를 요구받아 오게 된 것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담론은 서울대 신교수 사건, 97년 연대에서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문제제기 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다. 사건 해결을 구심점으로 하는 반성폭력 운동은 당장 직면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정받는 것부터가 싸움의 과정이었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은 언제나 운동의 주체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다.

반성폭력 운동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죽어있었거나, 살

권력은 항상

취약한 타자를

필요로 한다.

여성이

그들이 원하는

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성을

드러낼 때,

그 권력 구조는

흔들릴 것이다.

다시 여성의 언어로 반성폭력 담론을 되찾아 오자

아있더라도 은폐되어온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 경험에 기반 해 성별권력관계에 문제제기 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의 경험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에 가두어 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이 은폐되었던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존재시키기는 작업을 통해 성별권력관계를 고집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해방감을 안겨주는 일이 되기보다는, 고통만을 호소하는 '순결한' 무엇으로 피해자를 '피해자화' 하는 효과를 낳는 일이 되고, 반성폭력이 가지는 풍부한 성정치적 의미보다는, '성폭력은 끔찍한 것'이라는 인식만이 잔상처럼 남게 되곤 한다.

다시 여성의 언어로 반성폭력 담론을 되찾아 오자

성폭력이 성별화된 권력관계의 산물이며, 그것은 일상적인 사건인 동시에 정치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정작 그 담론을 통해 해방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또 다시 무력한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게 되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폭력 담론을 인정받기 위해 힘을 빼는 싸움이 아닌, 힘을 얻는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성별권력의 망으로 촘촘히 얽혀진 현실 속에 내가 위치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 그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느껴야 했던 억압적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취약성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성찰 가능성, 전복 가능성 또한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폭력 담론이 인정받기 위한 말하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 자기 긍정의 언어로 채워져야 한다.

최근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호신술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호신술 가이드북은 물론, 여성의 '몸단속'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취약한 존재로 고정시키고 그 취약함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보호를 승인하려는 사회 속에서, 그 취약함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단지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존감을 여성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업의 일환이다. 권력은 항상 취약한 타자를 필요로 한다. 여성이 그들이 원하는 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성을 드러낼 때, 그 권력 구조는 흔들릴 것이다.

표준에 익숙한 이들은 다름에 낯설다.
다름에의 낯섬은 다시 표준에의 강요를 낳는다. 표준에의 강요는 '다른' 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행해지게 마련이며, 배제된 다름은 비정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의 한쪽에 격리되곤 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표준이 많다-표준은 비정상을 낳는다.
우리 사회에는 유독 많은 '비정상' 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중, '가부장'이라는 명칭의 것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 이 '가부장'이라는 틀은 남성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철저히 비정상의 테두리에 가둬 놓는다. 성별에 있어서, 성적체성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구성원의 표준은 남성 이성애자이며, 남성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규정짓는 하나의 틀이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성을 체화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사회가 묶어둔 비정상의 테두리 속에서도 서로 다름은 존재한다. 실제로 다른 삶의 모습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회의 표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존재하는 여성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여성노동자라는 삶의 양태가 하나 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라는 표준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가사노동자로서 감정노동자로서 개인의 직접고용인으로 여성노동의 모습은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또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규정한 표준 속에서 여성노동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중의 표준에서 가려진 여성들의 삶의 모습도 존재한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비표준' 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 장애를 가진 이로서의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한다. 장애여성은 노동권을 가지기 어려우며,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으로 생존할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조차 쉽게 가지지 어렵다.

여성으로서의 장애여성은 남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사회에서 또 다른 권리의 박탈을 경험한다. 철저히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남성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성은 모두 무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때문에, 장애여성은 성적 욕구와 성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연대활동에* 짧은 사유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끼리끼리

장애여성공감

여성주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성주의자 서로간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다.

여성주의자가

서로 연대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며

제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연대를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 성적 소수자는 성적 소수자와 여성이라는 '비표준' 을 함께 안고 있다.

남성 표준의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섹슈얼리티 이외의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한다. 남성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여성성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며, 여성은 남성에게 예측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다.

남성 표준의 사회는 표준적이지 않은 여성과 표준적인 여성도 효과적으로 갈라놓음으로서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

남성은 스스로가 보호해야할 표준적인 여성과,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도 상관이 없을 표준적이지 않은 여성?성매매 피해여성을 이분한다. 후자의 여성은 간단히 사회에서 격리된다. 사회에서 격리된 여성은 스스로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지 못하며 기본적인 사결정권조차 존중받지 않는다. 남성의 행복권을 존중받기 위한 도구로서의 여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분된 여성은 모두, 하나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도구라는 이름으로 남성의 지배를 받는다.

반전의 흐름 속에서도 여성의 삶은 존재한다-그러나 그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전쟁은 차별과 폭력의 가장 극단화된 형태이다. 전쟁의 명분으로 작동하는 국의 담론은 여성을 철저히 배제한 남성 표준의 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담론이다. 때문에 여성은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

차별과 폭력의 가장 극단화된 상황에서 여성은 당사자이고 피해자이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자이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성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남성 표준의 사회는 항상 중심의 목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간혹 이미지화된 여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소리는 아니다.

표준에 익숙한 사회는 다름을 거부한다. 그러나 다름은 분명히 존재한다-여성의 삶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이다.

존재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표준에의 전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간의 연대를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연대' 는 다름에 의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주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성주의자 서로간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다.

여성주의자가 서로 연대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며 제 17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연대를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by 지혜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저우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빠져나왔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불편한 마음으로 두 시간 내내 참고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교수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 남학생들은 맞장구라도 치듯이 신나게 웃어댔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 한마디가 극심한 두통의 시작이었다. 저들은 여자 교수가 남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말을 해도 웃을 수 있을까? 때 수업시간마다 이러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듣나? 내가 너무 '예민' 하게 반응하는 걸까? 개인적으로 교수에게 말하기엔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에 땅만 보며 복도를 걸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수업시간에 강의실에서 보았던 두 여학생이 내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무심코 들리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아까 그 교수에 대한 나와 같은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 수업시간에 말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지 그녀들에게 느껴지는 동질감. 무엇보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마음이 놓인다. 그녀들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아니, 우리 셋 뿐만 아니라 아까 수업시간에 웃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모아 수업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편함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운 현실

수업 시간 중에 성차별적이거나 특정 대상을 성적으로 비하, 혹은 대상화하는 교수의 발언에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교수의 발언이 불편하고 어딘가 잘못된 것임을 막연하게 느끼지만 그것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이나 문제 제기의 필요성은 잘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다. 대개는 수업을 함께 듣는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가볍게 웃고 지나가거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이 '필요 이상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부정이 상황의 심각성을 덮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비록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교수의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하여 상황을 바꾸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의 우위가 분명하게 설정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곧 권력 관계를 거스름으로 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학점에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교수가 이의를 제기한 학생을 기억이라도 해 두었다가 수업 시간에 2차, 3차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교수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 자

때로는

거대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주 작은

행동인 것이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혹은 혼자라서

낼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한데 모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도 의문인데다가, 혹시 오히려 학생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며 전체의 맥락을 보라면서 화라도 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 교수의 발언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 혹은 이유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수의 발언에 대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에 호응하여 웃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면 자신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될 지는 어쩌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재는 왜 유난 떨고 그래."와 같은 이유에서부터 순간 싸해지는 교실 분위기나 암묵적으로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대응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수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꾸역꾸역 참고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서야 내 맘을 알아 줄 여자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그 불편함을 얼마간이나마 털어내곤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하지만 수업 중의 이러한 교수의 행동은 분명히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모든 행동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단지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편감이나 당혹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언어 행위도 성폭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중의 상황은 충분히 문제적인 것이고 이는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학생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더 이상의 2차, 3차 성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17대 총학생회에서는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한다. 이는 자신의 불편함을 의심하며 힘들어해야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문제를 드러내어 상황을 바꾸어내기를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작은 문제의식과 목소리이다. 때로는 거대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주 작은 행동인 것이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혹은 혼자라서 낼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한데 모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학생이, 그리고 여성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도 한다. 학생은 엄연히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이기에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수업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동시에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자신을 향하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by 생생



Networking & Empower ★

-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거기 있나요?

때가 고른 것처럼, 여자친구들이 '고플' 때가 있다.
오늘 무슨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나 너무 기분이 이래, 라든가,
너는 이러저러할 때, 어떻게 하니? 라든가,
우리 오늘 어디 어디 가서, 무엇무엇 할까? 와 같은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정을 토로해내고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며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고플' 때가 종종 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고, 또 내가 공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다음 아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공통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많고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다.

내 주위에 그런 속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하나씩 만나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나와 좀 비슷하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대로, 나와는 좀 다르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사람대로 내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즐거운 자극이 되어주고, 부드러운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너무도 맛있고 특별한 것이었다. 그녀들에게서 나는 힘을 얻고, 나는 또 그녀들에게 힘을 준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많은 여자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공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게 되는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다. 사이버 뉴스를 속 훑어보다가 거기 달린 리플들을 보며 얼굴을 찡그려야 하고,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들은 나를 압박하고, 영화나 tv에서 보게 되는 여성들은 왜 한결같이 연약하고, 시선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이미지는 왜 볼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하다. 그러다가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내가 유난한 것일까, 결국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한단 말인가, 아님 이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갈까, 그럼 무언으로 훌쩍? 하는 등 별별 생각들을 떠올려다 끝내 '안분지족'으로 결론을 맺고 말아야 한다. 혹은, 일상에서 겪은 마음 아픈 일들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너무 벅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 할 때도 있었다.

그렇기에, 앞에서 이야기한 여자친구들의 존재는 내게 있어 너무도 중요하다.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나의 힘을 충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거 좀 싫고 불쾌한데 싶은 것들 그래서 짜증나고 답답한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 나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럿이서 말하는 것이 더 든든하고 자신 있다. 혹은 내가 꼭 실제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유히 둘러보면서 고개 끄덕이기도 하고, 아하! 싶기도 하고, 육과 비아냥이 섞인 리플들을 안 봐도 되는 온라인 공간을 들락날락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내게 힘내는 약을 먹는 기분이다. 그래서 여자친구들끼리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종종, 잊고 있다가도 꼭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을 갖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도 늦게 알아 버린 것이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것을. by 고래



신나게, 힘차게, 당당하게,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무더운 여름 방학,
온갖 짜증나는 일상은 다 던져 버리고
우리끼리 놀아 봅시다.

페미니즘 캠프

학내에서 여성이



때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거나 몸이 무거워진 것 같다고 투덜거릴 때면 주위로부터 놀상 듣는 말이 있다. '그러게, 운동 좀 하지 그랬어? 나는 나름대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었다. 지금은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운동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설명하느라 입에 침이 마른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1학기까지 우리학교 체육관을 이용했던 경험을 여기에 풀어놓으려고 한다. 미리 밝히지만 나는 학내에서 체육관 외의 체육시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들은 소문들은 조금씩 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분히 남성적인 냄새가 나는 영역이다. 그래서인지 프로 스포츠는 거의 다 남자선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운동을 하는 친구'라고 말하면 대개 여자보다는 남자를 떠올린다. 학내에 있는 운동 관련 모임 중 다수는 남자부원과 여자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를 오고가며 볼 수 있는 운동들인 농구, 축구, 족구와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대개 남학생들이다. 1년 남짓 학내에서 운동을 해보았으나 같이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는 손에 꼽는다. 그래서인지 운동하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으로 흘러간다. 남성이 다수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와 상대되는 개념인 여성은 운동을 할 때 배제되거나 지나친 배려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이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동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진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선뜻 운동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학내에서 여성이 운동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은 오직 운동의 분위기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1년 남짓 즐겨 찾았던 체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체육관에는 다행스럽게도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체육관 외관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그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체육관 시설이 대체로 몹시 형편없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탈의실에 옷을 보관하거나 걸어둘 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은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다. 샤워실에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샤워기가 4개~5개밖에 설치되어

특별기고

대학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운동하는 것의 쉽지 않음

있지 않다. 그 이야기는 10명이 넘는 여학생이 동시에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습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 샤워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과 창문도 몹시 열악하여 그나마 날이 추워지면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썰렁한 것은 포기하는 편이 낫다.

샤워실에 달려 있는 문과 창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것들은 당장 떨어지지도 놀랍지 않을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이 연결되어 있는 체육관 시설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무법자도 존재한다. 남자분이신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자 탈의실에 불쑥 들어오는 것은 예사, 혹자가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름이면 어쩌다가 농구하다가 굴러들어 온 농구공을 찾으러 여자 화장실 쪽으로 뛰어 들어오는 남학생은 예외로 보일 정도이다. 사실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상태를 보면 누가 들어올까 두려워서 한부로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 대체로 꼭 신경을 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해도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상태의 문과 창문이 아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혼자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 문을 잠가 놓으면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그럴 때면 혹시 그 무법자가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곤 한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같이 운동을 했던 여학생들은 대체로 샤워하는 것을 포기했다. 혹은 같이 있는 여학생들이 다수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땀 흘려 운동한 뒤 땀을 씻어내는 것에 도전한다. 시설의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학내의 많고 많은 운동 환경 중에서 체육관에 한정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만 소문을 듣자하니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더 열악한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교양체육을 수강하고 있는 주변의 여학생들을 보면 역시 학내에서 운동을 하고 난 뒤 땀을 씻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 자기관리 등의 이야기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학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몇 가지 더 있어 보인다. 여성인 나도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by JJ(정) 사회학과 권선아

10월 어느 늦은 저녁, 선본 호의에서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움·펼·름 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긴데, 이것 어떻게 자료집에 담아내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자기 이야기를 물어 보면 되지 않을까? 여성주의가 내게 힘이 되주는 순간들, 왜 여성주의를 화두로 이 선본 활동을 같이 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들 말이야."
"그리고 내 안의 FENERGY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주의자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사를 씌어주는 수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사가 소수자에게는 폭력이 될 때, 그것을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마음껏 분노할 수 있는 공감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모여서 이런 수도를 같이 펼친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가 내게 주는 힘이기도 하지 ^^"

그래서 마련한 이 자리, 그녀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나쁜 상황들과, 그녀들이 내게 주는 힘

오매: 힘나는 얘기를 해 보자

꿀: 나는 머리를 바꾸면 힘이 나 ^^

오매: 언니네 자기만의 방에서 친구가 예전에 쓴 글을 봤어. 그 친구가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이나설로 써가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 써 놔는데, 그거 보고 되게 몽글했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말할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지.

에니스톤: 나는 '진보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히 시비 걸지 않고 입을 다물 줄 알더라구.

오매: 허억,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감동받으면 안 돼... T
당연히 모르면 경청부터 해야 하는 건데, 워낙 나대기 좋아하는 잘나신 분들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감동을 주는 현실이라네!

잠수: 내가 아는 남자에 중에 어머님이 여성주의자이신 애가 있어. 근데 그는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여성들이 성형 수술해서 예뻐지면 다들 예뻐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에니스톤: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많으면 자기도 페미니스트인 줄 아는 것 같아.

오매: 페미니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 여성주의가 일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상을 성찰하는 게 더 힘든 건데, 삶은 멋대로 살면서 여성주의자라고 하고, 난 여성주의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 괴로운 일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

꿀: 20 몇 년을 그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 나중에 알게 되면 괴롭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 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파라: 나는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있다는 상황 자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는 여성주의 활동하기 전에는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었어. 과가 정해지면서 반 친구들 만날 기회도 적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공간과 시간 자체가 편하고 좋아.

에니스톤: 난 여성주의자 친구들은 권위가 없어서 좋은 거 같아. 거부정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같은 거 있잖아. 오매도 여기서 안 만나고 반에서 만났으면 언니라고 불렀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말을 놓는데, 다른 동아리에 있을 때는 그 동아리가 '진보'를 표방하는 지라, 말을 놓으라고 선배들이 그랬거든. 하지만 당장 선배의 권위가 느껴지는 대화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말을 놓기가 힘들었지. 존재하는 권위를 외면하면서 말을 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오히려 강요였어.



그래서 우린, 움·펼·름으로 만났다.

잠수: 난 대학 들어 왔을 때 연대생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 같은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여기는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 게 맘에 들고 배울 것도 많아 보여. 대학교 와서는 졸업 잘 하고 취업 잘 해서 결혼하고 뭐 그런 생각했는데, 웬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회적인 의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여성들의 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 별명 부르고 말 놓는 것도 좋아 ^^

오매: 사실 권위를 세우지 말고 말을 놓자고 하거나, 성폭력을 예방하자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말만이 아니라, 그걸 자연스럽게 일상화시키는 공간을 잡하게 될 때 내가 정말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꿀: 난 우리 아버지가 무척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이셔서 반발심이 많았어. 그리고 올 해 초에 반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들이 다 너무 상식 아하인 거야. 그 때 실망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만 조금 갖고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를 같이 하게 됐어.

자매: 대학 와서 1년 동안은 마초적인 반에서 빠져나오려고 했고 인터넷 동아리에서도 그런 걸 보고 나왔었어. 학교에서 하던 동아리도 별로였고, 내가 과연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젠 말을 하는 건 자진 상태고, 뭔가 몸으로 부딪쳐 행동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선거에 뛰어들었지.

물물: 나도 꿀이랑 비슷해.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셔서 고등학교 때까지 남잔 그래야하는 거구나, 여잔 그래야하는구나 했었어. 근데 루미 소개로 나윤경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여성이 소극적으로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성학 학교에 참여하고, 선거를 같이 하게 됐지.

청태: 내가 나온 A고등학교는 여남을 12로 뽑았어. 여자도 커트 머리에 교복까지 입혔구. 어떤 사회 선생님이 남자애들한테 연애는 A고 애들이랑 하고 결혼은 A고 애들이랑 해서 똑똑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거야. 항의를 하고 싶은데 나의 언어가 없었어. 대학교 들어와서 자치 신문사에서 여성주의 선배를 만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 책

에 이름 쓸 때만 양성쓰기 하고 그랬지 (웃음)
교한 학생 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일상에 차여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했고, 여성주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었어.

오매: 난 대학교 오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남녀평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었어. 강한 여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의 연애 상대가 되고 싶기도 한 마음들이 충돌하고 그랬지. 대학 와서 여러 동아리들을 전전했는데, 그 때마다 마지막에 느꼈던 감정은 여기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나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였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는 언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같은 학회에 있던 여성주의자 언니들 소개로 여성주의 활동을 하게 됐지. 활동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걸 하려고 달려들수록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은 여성주의자들과 여성주의 활동을 할 때였어.

파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이 있잖아.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서 괴롭기도 했고, 엄마아빠가 많이 싸우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 대학교 와서는 동아리를 하는데 좋아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아리가 가진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싫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싫다는 감정을 통해서 알아지게 됐구. 학회도 했었는데, 학회에서 하는 얘기들도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어. 그 이후에 새움터 자원활동을 갔다왔는데, 무척 인상 깊었어. 내가 겪었던 무기력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거든.

물물: 오매랑 비슷했어. 양성이 가진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리더쉽과 강한 면들과 여성이 가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습성들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 남성과 여성이 가진 권력관계를 몰랐던 거지. 그냥 몽글몽글하게 살면,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여성인 이상, 그게 성립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언어가 필요했고, 언어가 있어야 뭔가를 물어볼 수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성학 학교에 참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지.

... 끝없는 수도로 그칠 줄 몰랐던 만담자리.
그래서 Fenergy로 가득 충전된 그녀들의 일상에 계속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나만의 느낌이었을까?